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가장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도움을 주셨어요

어느날 아버지가 목 주변이 심하게 붓고 고름이 나오다  
며 병원에 가셨습니다. 부산의 대학병원이었지만 그 병원에는  
진료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어서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단순한 염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부경부감염증세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선고를 받았고 가족들 모두 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이 5차까지 계속되고, 또 수술할 수도 있  
다고 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가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  
다. 아버지는 기관을 절개해 의사표현도 어려웠기에 직접  
간병을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생활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던 중 아산재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완치를 기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치료비 걱정이  
떠나지 않던 터라 아산재단의 도움은 가뭄의 단비같이  
소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따뜻한 도움을  
주신 아산재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  
제 끝날지 모르는 수술과 치료의 깜깜한 터널 안에서 한 줄  
기 빛이 되어주신 아산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김주미 드림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딸과 함께 새출발할 수 있어 행복해요

저는 베트남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지금은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집과 자동차를 처분해 빚을 갚고 나서 지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이자 한부모가정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비를 절약해 매달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증세가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미용사 자격증을 활용해 취업할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집 계약이 만료되어서 급히 살 곳을 알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LH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산재단의 지원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밥솥, 가스레인지, 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새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아이와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정 드림

